

지역 소식통

완주,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임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이달 19일까지 '완주군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모집한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지역 정보 콘텐츠를 생산 및 게시하여 완주군의 이야기를 들려줄 서포터즈를 말한다.

완주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만 5년내 완주군 전입 귀농인이거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운영중인 자, 관련 전공 또는 관련 직종 종사경력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방법은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동네작가로 선정이 되면 활동 내용에 대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은 "완주에서의 일상을 들려줄 동네작가를 통해 완주에 귀농귀촌하려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줄 역량있는 완주군민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김제시지회 축산면에 나라사랑 태극기 기부

김제시 축산면(면장 강윤석)은 12일 축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김제시지부 회원 및 축산면 면소재지 5개마을 이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용 태극기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태극기 전달식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해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가치관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실시됐다.

한국자유총연맹 김제시지부(회장 김낙현)는 축산면에 가정용 태극기 세트 총 200개를 기증한 후, 태극기 나눔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제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 참석한 마을 대표들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기증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을 독려하여 나라사랑, 지역사랑을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 박차

완주군, 국토부 공모 사업 최종 선정 국비 3억원 확보  
혁신도시 시설물 세밀도별 3차원 가상공간 구축 예정  
LX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행정적·기술적 지원도 받아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 도시와 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국가 위기기반 플랫폼인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모 사업에 전북(완주) 혁신도시 디지털 트윈국토 미래도시 구축으로 응모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3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국내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된 이번 국토부와 LX의 시범사업 공모에는 국

내 총 44건의 지자체 계획서가 접수됐으며, 엄격한 평가와 심사 끝에 완주군이 선정돼 디지털 뉴딜사업의 깃발을 올리게 됐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북(완주)혁신도시는 디지털 트윈 개념의 건물, 시설물 세밀도별 3차원 가상공간이 구축되고, 도로와 교통시설물 등 기반데이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도시·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모델이 실증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관리기관인 LX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전문 컨설팅 서비

스도 지원받는다.

이번 디지털트윈 국토사업을 통하여군은 공귀괄위도시관을 둘러싼 교통, 불법주정차 지도, 신규 주차장 입지분석 및 구축 등을 통해 행정활동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 1호선 갈산교차로 신설 공사를 시뮬레이션해 기대효과와 문제점, 보완사항, 상습 정체구간 해결 등의 교통량 분석을 통해 향후 도로교통 계획수립 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대응 솔루션 및 환경모니터링, 도시공원내 태양광에너지 효율분석 등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트윈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완주군 전역으로 3차원 데이터 구축을 확대해 공간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농복합형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

검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검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한남수, 공공위원장 이진우)는 지난 11일 검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2021년도 상반기 복지특화사업 결과 보고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생에 따른 이웃돕기성금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 올해 9월에 시행하는 뽕송뽕송이불 뽕래사업을 시작으로 8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전 계층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복지사업

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남수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우 검산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민관협력력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소외계층 없는 검산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복지사각지대 놓인 위기가정 대상 자원 연계

김제시나눔연맹, 협약 체결... 저소득 가정 지원 2600만원 상당 물품기탁식도 가져

김제시와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12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자원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에 지원될 2,600만원 상당의 물품(라면 200박스, KF 94 마스크 1만장, 쌀 5kg 400포)을 기탁했다.

안천웅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저소득층 가정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김제시 취약계층 가정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나눔연맹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김제시도 저소득가정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2월에 설립된 단체로 소외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사



김제시와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12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자원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은 물론 생활여건 개선사업 및 세계에 앞장서고 있다. 지구촌 빈민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저탄소 생활 실천 대대적 확산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생활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 본격화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에 적극 나선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가정이나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최대 1만5천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저탄소생활 실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완주군은 국비와 지방비(도비, 군비) 등 총 8,4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포인트 적립 후 상품권이나 그린카드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으로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 세탁물은 모아서 세탁하기, 양치와 샤워시 물 받아서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등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완주군은 올해 4월부터 탄소포인트제 인터넷 홍보에 나서왔으며, 기후변화주간에는 군청사와 지역 내 아파트 47개소를 대상으로 소

통행사를 하는 등 저탄소 녹색생활의 대대적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완주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녹색아파트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가입을 추진하고, 가입 시 멀티탭 등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서 적정 실내온도 유지, 절전형 전등 교체,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완주 실현'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도시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대전환 ▲혁신적인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주민주도형 탈(脫)탄소 도시로 전환 ▲자원절약 순환경제 확대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 ▲산림 탄소 흡수원 확대로 그린뉴딜 선도 등 5대 중점추진 방향을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